

미국, 농산물무역구조 변화동향

지금부터 10년 전 미국 농산물 수입액이 언젠가 수출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다. 실제 미국은 1959년 이래 44년 동안 농산물 순 수출국이었다. 1996년 이후 농산물 무역흑자가 273억 달러에서 105억 달러로 감소되었다. 미국 농산물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수입이 수출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사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3년에 대략 30억 달러 정도 증가했고, 2004년에도 농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수출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한편으로 세계의 주도적인 농산물 수입국이기도 하다. 지난 7년 동안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1996년 320억 달러에서 2003년 460억 달러로 13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현재의 농산물 무역흑자는 10년 이내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망되는 무역수지의 반전으로 인해서 무역수지 적자의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쟁력 상실의 징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한 국가의 세계의 재화교역에 대한 구조와 규모나 이들 재화에서 발생된 혜택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회계상의 수치일 뿐이다. 미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경제성장, 인구이동, 소비자 선호의 변화 등의 기타 요인에 관한 면밀한 분석에 의하면, 무역수지 적자기조는 단순히 수치상의 마이너스 부호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1. 1990년대 말 수출 감소

20년 전, 미국 수출품의 50% 정도는 곡물, 유지종자, 면화, 담배 등 주요 벌크 품목이 주종을 이루었다. 축산물과 원예 농산물이 총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0%에 머물렀다. 오늘날 벌크품목의 수출비중은 36%로 하락한 반면, 축산물과 원예 농산물의 비중은 각각 16%, 21% 상승하였다.

미국 농산물 수출 구조의 변화와 함께, 세계의 경기변화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 감소를 주도하면서 미국 농산물의 수입을 증가시켰다. 먼저, 1997년에 시작된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한국, 대만,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의 외채부담과 경제침체를 가져온 동시에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억제시켰다. 금융위기가 러시아에서 남미로 확산됨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경제는 그동안 달러화의 강세로 인한 미국 농산물 수출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미국 농산물 수요는 감소했고, 농산물 수출액은 1996~1999년 동안 10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식용 및 사료곡물, 면화, 담배의 수출액은 이 기간동안 연평균 10%씩 감소했지만, 최근에 와서 반등되었다. 곡물 가운데 밀, 쌀, 옥수수, 보리, 수수의 수출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벌크 품목의 총 수출액은 1996~2000년 동안 60억 달러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곡물의 수출액이 약 34억 달러나 감소했다. 곡물 수출의 감소와 더불어 세계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수출액의 감소를 더욱 가속시켰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가공식품의 수출이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5%, 6% 정도 증가하지 않았다면 더욱 감소했을 수도 있었다. 미국의 가공식품

수출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고, 이들 식품의 수요는 일본과 유럽과 같이 성숙한 시장의 성장이 더딤에 따라 다소 침체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내 노동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가공식품 기업들은 해외에 기반을 둔 공장에서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유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공식품(어류 및 조개류 제외)의 수출은 수입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왔다.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곡물, 유지종자 등의 작물을 생산하는데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농산물 순 수출국이다. 미국은 유리한 토지자원과 노동대비 자본비중으로 인한 비용우위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이러한 작물을 생산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생명공학기술이 적용되고, 영농기업체가 통합됨에 따라 이러한 자본집약 분야에서 생산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하지만 주요 시장에서의 수입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곡물과 유지종자의 수출에 어떤 변화가 발생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에 수출된 미국의 벌크품목의 비중은 43%에서 34%로 하락하였다. 급속히 성장하는 개도국들은 미국의 벌크 작물이나 기타 농산물의 장래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령, 중국은 현재 유럽연합을 제치고 미국 대두의 최대수입국이다.

2. 미국 경제 활성화와 수입증가

1990년대 말 달러화의 강세기조는 미국의 수출을 억제시켰지만,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였다. 1996~1999년 동안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 말 가처분소득과 투자자산의 수익이 사상최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입 식품과 음료 등 고가의 품목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켜 왔다. 채소, 과일, 과일주스, 견과류, 포도주, 맥주, 절화류 등의 원예 농산물의 수입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4~2003년 동안 미국 농산물 수입 증가의 53%가 원예 농산물의 수입 증가에 기인하였다. 신선 및 가공 채소의 구입은 1994~2003년 동안 27억 달러에서 6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포도주의 수입액은 1994년 10억 달러에서 2003년 3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적색육(red meat) 및 유제품과 같은 축산물과 곡물 및 설탕류 등의 수입도 미국의 농산물 수입증가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구매력이 상당히 큰 미국 소비자들은 보다 많은 수입 가공식품을 구매해 왔다. 가공식품 및 사료작물과 음료의 수입액은 280억 달러로 2003년 46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총 농산물 수입액의 62%를 차지했다. 해산물과 증류알코올을 제외한 2003년 가공식품의 수입액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수출액을 약 20억 달러 이상 초과했다. 수입 가공식품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품목들은 치즈, 통조림 과일 및 채소, 과자류, 파스타, 사탕류, 식물성 기름(대두 제외), 포도주, 맥주, 커피, 코코아 등이다. 가공식품의 수입액은 1994~2003년 동안 연평균 7%의 성장세를 보였다.

3. 소비자 주도 수입수요 증가

인구증가,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 달러화의 강세,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본과 EU의 경기 등 다양한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을 감안할 경우, 최근의 수출입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전환이나 인종의 다양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식품과 음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변화는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 패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미국인의 1인당 식품소비량은 평균 2,000파운드에 달했고, 이 중에서 36%에 달하는 700 파운드 이상이 원예 농산물이었다. 2003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의 43%가 원예 농산물로 1994년 이후 연평균 8.4%의 성장세를

보였다. 2010년까지 농산물 수입의 50% 정도는 원예 농산물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열대성 농산물인 코코아, 커피, 설탕류 등이 포함될 경우 총 수입에서 원예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증가할 것이다.

과일 및 채소, 과일주스, 견과류의 1인당 소비량 증가는 앞에서 언급한 경제적 요인 이외에 인구 이동, 식생활 변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건강식품을 주로 찾는 계층인 노년층의 식생활은 식품소비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소비자들은 보다 영양가 있는 고섬유질 식품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에 따라 점차 곡물, 제과류, 포도주, 맥주, 치즈로 소비를 전환하고 있다. 외식을 하거나 고가의 식품을 주문하는 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령, 가정에서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경우, 즉석 식품이나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음식, 포장되거나 미리 조리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요리할 시간이 거의 없는 소비자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수인종의 음식점 메뉴의 진열,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인의 친근감이 더해지면서 보다 이국적인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이 증대하고 있다. 국내 생산자들이 보다 다양한 식품과 음료에 대한 미국인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서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주로 곡물과 유지종자 등 주요 농산물과 사료, 육류, 가금류, 유제품, 채소의 생산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소비에 대한 수입 비중은 2002년에 13%로, 총 식품소비에 대한 수입 비중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 보다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식품은 국내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 해외에서 보다 저렴하게 생산되는 품목, 비수기의 농산물 등으로 온갖 종류의 수입품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연중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들 수입품들은 가격의 불안정성을 줄이면서 식품가격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처럼, 미국도 소비자의 소득증가와 함께 최고급 식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식품을 요구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수입품목에 대한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4.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개도국

자연의 부존자원이 풍부한 개도국들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농산물 및 식품을 생산하는데 유리하다. 가령, 대규모 인구에도 불구하고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국내소비를 초과하여 일부 작물을 생산하여, 이를 수출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농가의 확대, 종자 보급 및 식품가공 기술, 풍부한 노동력,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에 유리한 기후 등의 비교우위를 통해 농산물을 해외 소비자에게 수출하여 지역 주민을 부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 개도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 가운데 하나는 원예 농산물이다. 미국 농산물 수입의 42%가 원예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43%가 멕시코와 남미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개도국의 운송체계, 냉동저장 및 식물배양 기술 등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예 농산물의 품질과 공급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은 미국의 가공식품 수입의 3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총 농산물 수입의 62%가 가공식품이라고 전제할 경우, 미국인의 식단에서 차지하는 개도국의 가공식품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5. 미국의 식품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

미국인의 1인당 식품소비량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10 파운드 정도 증가한 동시에, 수입식품의 1인당 소비량 또한 매년 5 파운드 정도 증가해 왔다. 1983년 1인당 식품소비량 1,800 파운드 가운데 160 파운드가 수입되었다. 2002년까지 1인당 소비량은 2,000 파운드로 증가했고, 1인당 수입량은 263 파운드에 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은 매년 수입식품을 전보다 많

이 섭취하고 있고, 총 식품 소비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총 농산물 수입액에 근거할 때 2002년 미국인 1인당 수입식품과 농산물의 소비액은 142 달러에 달하며, 이는 1983년 수입식품 소비액의 두 배 이상 달하는 수준이다.

1980년대 초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소비식품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에서 13%로 상승하였다. 이런 증가추세는 주로 원예 농산물, 과일, 과일주스, 견과류, 채소, 포도주, 맥주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과일, 채소, 곡물류의 소비량이 2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량은 100% 이상 증가했다. 2002년 식품 수입량은 1982년 3,9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식품 수입량을 훨씬 초과했다. 총 식품수입량 가운데 원예농산물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220억 파운드에 달했다.

미국의 적색육 1인당 소비량이 1980년대 초 124 파운드에서 2002년 110 파운드로 감소했지만, 적색육(주로 쇠고기 및 소아지고기)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은 6.6%에서 9.3%로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유제품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은 1.9%에서 3.5%로 거의 두 배나 증가하였다. 어류와 조개류의 수입비중은 1982년 50% 보다 상승한 80%에 이르고 있다. 축산물과 해산물의 전체 수입비중은 1982년 3.3%에서 2002년 5.2%로 증가하였다. 축산물의 총 수입비중은 가금류와 유제품의 수입비중이 적기 때문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작물 및 조제품의 수입비중과 비교할 때 축산물의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원예 식품, 음료, 식물성 기름, 곡물 및 조제품, 과자류, 사탕류, 열대성작물 등 작물 및 작물 조제품의 총 수입비중은 1983년 13%에서 2002년 19%로 증가하였다. 거의 100%를 수입하는 커피, 코코아, 홍차, 양념류 등의 열대성작물과 어류 및 조개류를 제외하면, 어떤 식품도 국내 소비량의 1/3 이상을 수입하지는 않는다. 단지 과일, 과일주스, 견과류 등의 총 수입비중

이 31%에 육박하는 반면, 포도 및 포도주스, 사과주스 등의 개별 품목의 수입비중은 이보다 다소 높은 실정이다. 주요 채소류 가운데, 브로커리, 오이, 토마토 등은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들이며, 아스파라거스(asparagus), 고추(chili pepper), 감자, 무 등의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색육과 유제품의 수입액은 축산물의 단위당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작물 및 작물 조제품의 수입액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표 1 미국 식품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분	1981-85	1986-90	1991-95	1996-00	2001	2002
총 식품소비	9.0	9.7	10.5	12.0	12.5	13.0
축산물	3.4	3.7	3.5	4.1	5.2	5.3
적색육	6.7	8.1	7.3	7.7	9.3	9.5
유제품	1.9	1.8	1.9	2.5	3.4	3.5
어류 및 조개류	50.9	56.0	56.0	64.4	77.8	78.6
작물	14.0	14.9	16.1	18.2	18.4	19.1
과일, 주스, 견과류	21.0	26.6	27.3	28.6	30.0	31.0
채소류	4.9	6.0	5.5	8.0	8.8	9.6
식물성 기름	15.5	17.6	17.4	18.0	15.5	15.5
곡물 및 조제품	1.7	2.9	5.6	5.9	5.8	5.3
향신료 및 사탕류	35.8	25.6	29.4	34.2	28.6	28.0

주 : (1) 축산물은 가금육 및 동물성 지방 포함(계란 수입 제외).

(2) 작물의 경우 음료와 수입비중이 100%인 커피, 코코아, 홍차 포함.

(3) 2002년도는 잠정치임.

자료 : USDA. ERS

6. 무역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역할

미국 수입식품의 약 15%는 해외에 있는 농가, 가공공장, 제휴기업을 통해서 미국 식품제조회사에 의해서 공급된다. 가령, 미국은 Dole, DelMonte,

Chiquita 등의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기타 열대성 과일, 통조림 및 신선 채소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미국계 기업과 계약을 맺은 외국 재배업자들은 대규모 미국 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 식품 제배업자와 제조업자, 혹은 이들의 제휴기업들은 다른 다국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토지, 노동, 원료 등의 낮은 비용과 자본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를 갖게 됨에 따라 보다 신선하고, 가공된 식품을 외국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게 될 것이다. 멕시코에서 미국과 제휴한 식품 제배업자와 제조업자들은 이미 신선하고, 가공된 과일과 채소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대다수 미국의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관측이나 제휴회사를 통해서 해외시장에 공급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생산비용을 낮추며, 관세 및 무역장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수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해외에서 생산하도록 권장받는다. 미국은 캐나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순수입국인 반면에, 미국 기업들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Kraft Foods 사는 캐나다에 주재하는 선도적인 미국의 식품제조회사이며, PepsiCo 사는 멕시코에 주재하는 거대 기업이다. 미국은 Coca-Cola 사와 PepsiCo 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청량음료(soft drink) 제조회사이지만, 청량음료를 수출하기 보다는 더 많은 양을 수입하는 실정이다. 미국 식품제조회사들은 자체적으로 해외지부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은 미국의 수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 미국인이 원하는 식품을 제공하는 무역

미국 농산물 무역수지는 자체적으로 수출경쟁 혹은 수입의존의 척도가 아니다. 미국은 곡물, 유지종자, 적색육, 가금육, 면화 부분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춘 수출국인 동시에 곡물 조제품, 식품성 기름, 쇠고기, 돼지고

기, 육우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 농민들과 식품제조업자들은 미국인이 원하는 충분한 식품(가령 열대성 작물)을 생산하지도 생산할 수도 없다. 오늘날 무역은 해외에서 보다 저렴하게 생산되거나 국내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요구를 제공하는 수단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입은 수출과 성격이 다르고, 계속해서 수출과 독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부패하기 쉬운 신선 식품은 국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수입되며, 주로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미국 수출품의 36%는 벌크 품목이 차지할 것이다. 미국 무역흑자가 감소한다는 사실이 미국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식품과 음료에 대한 미국인의 선호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미국 기업 및 제휴기업을 포함해서 대규모 미국시장에 공급하는 해외 식품생산자와 제조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인구, 소득증대, 소비자 기호는 장기적으로 수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0년 인구는 3억 1,300만 명으로 2,0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규모와 다양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입품목 또한 다양하게 될 것이다.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매년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품질, 고가의 식품에 대한 1인당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농산물 수입량과 수입액이 증가하여 총 식품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수출증대 여부는 세계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에 달려있으며, 수출과 수입은 모두 달러화의 가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달러의 구매력이 증가할수록, 수입도 수출에 비해 점점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식품을 보다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료: USDA, ERS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